

투데이 칼럼

김정은과 북한 청년 세대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덮친 북한이 '내부 결속과 단속'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병식 등 굵직한 행사들은 모두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하고 부각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청년 사랑' 이미지 연출이 돋보인다. 열병식에 동원됐던 청년들에게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진을 함께 찍고 먼저 제안을 한다.

북한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청년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 검증이 여전하다. 바로 당근과 채찍의 북한 청년정책이다.

크고 화려했던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주년 열병식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있었다.

광장 한복판을 배곡하게 채운 '배경대'는 소위 '바다대열'이라고 불리는 동원 군중들이었다. '결사옹위' '부국강병' 등의 글자를 만드는 것도 모두 이들 몫이다.

그리고 이 '바다대열'엔 대부분 청년들이 동원된다.

최근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과 열병식 참가 청년들의 기념사진 촬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지금까지 기념사진 촬영과 최고지도자의 기념 촬영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노동신문 역시 이 소식을 1면에 실고 역사적 사건이라 전했다. 실제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와 찍은 사진은 '호 사진'으로 불리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영화에도 최고지도자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어떤 의미인지 잘 표현돼 있다.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노동당 입당이나 진급 등의 특혜를 받는다. 북한 당국은 이를 충성심 유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 참가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한 것은 청년 세대를 겨냥한 것이라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해 8차 당 대회를 통해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수많은 청년들이 전국의 경제 현장으로 동원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원에는 물질적 보상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청년들의 충성심이 부각되고 있다.

대규모로 동원되는 청년들에게 미래 보장이라는 희망을 심어 주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 '호 사진'으로 불리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12월엔 반동사상문화 배격전과도 비슷한 모양새다. 마시평 스키장,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등 여러 건설, 경제 분야에 청년들을 동원했다.

당시 북한은 20여 년 만에 '전국 청년 미풍선구자대회'까지 부활시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된 청년들을 칭찬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돌격대원 한 명은 마침내 노력 영웅이 됐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열병식 참가 청년들까지 챙기는 것은 장마당 경제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징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이러한 청년정책은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대남 비난이 고조됐던 2020년 6월 대규모 군중집회와 시위를 청년들이 주도했다.

지난해엔 청년동맹 10차 대회를 열

고,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의 지지도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8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변화와 개방을 원했던 청년 세대의 기대와 달리 10년째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상과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단속,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 세대가 많이 접하는 '한류'는 반사회주의라며 더욱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

2020년 12월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채택해 한류 등 외부 문화를 유포시킬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북한 청년들이 당국의 바람대로 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016년 군인 신분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어느 청년은 탈북을 결심한 이유로 한류와 전방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꼽았다. 또 다른 청년 역시 자신의 미래를 위해 1호(김정은) 사진 촬영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동경은 별개라고 말한다.

북한 청년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변화에 민감하고 외부 문화에 익숙하다.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근과 채찍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설

선미촌 마지막 업소

전주시 서노송동 일대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의 마지막 업소가 문을 닫았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선미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미촌 내 마지막 성매매 업소는 모두 3곳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다. 결국 올 2월 모두 문을 닫았다.

선미촌의 성매매 업소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려 85곳에 달했다. 그 러나 성매매 업소는 해마다 줄어들었다. 급기야 2018년 21곳(30명)→2019년 17곳(25명)→2020년 15곳(22명)→2021년 1월 10곳(15명)→2021년 3월 7곳(10명)→2021년 6월 3곳(4명)으로 줄었다.

자발적인 영업 중단을 유도함에 따라 결국 마지막 남은 성매매 업소 3곳이 지난해 하반기 선미촌에서 영업을 중단했다.

한편 전주시는 선미촌을 여성 인권의 무대이자 문화와 예술

이 꽃을 피우는 예술촌으로 새로 조성했다.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선 것이다. 지난 2017년 선미촌 내 '서노송동 예술촌'이 입주했다. 이어 2020년까지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다.

방법을 및 불법 주차차 단속 CCTV도 설치했다. 그밖에 이 일대 빈집과 성매매 업소를 매입했다.

그 자리에는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 전주, 그리고 예술서점인 '물결서사', 작은 미술관인 '뿔뿔의 미술관' 등을 조성했다.

선미촌이 예술촌으로 변한 데는 남아 있던 업소들이 스스로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선미촌이 여성 인권의 상징 공간으로 변한 것은 전주시 당국의 도시재생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선미촌이 문화예술의 힘을 확인하는 혁신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전주 야호전환학교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5길 15-10에 있는 전주시 야호전환학교의 입학식이 지난 3월 열렸다. 입학식에는 기존 학교에서 휴학 또는 자퇴하거나 홀스쿨링 경험자 등 비전학 청소년 7명과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 유입된 청소년 3명 등 10명의 신입생이 참석했다.

야호전환학교는 전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전환 교육 기관이다. 학교 운영 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 과정이다. 운영 형태는 통학형, 전일제(주5일, 7시간)이다.

야호전환학교는 올해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은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의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이다.

야호학교는 지난 2021년 5월 청소년 기관 근무 경력자

나 전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2021 전주형 전환교육 활동가 양성교육 참여자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전주형 전환 교육 활동가는 청소년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탐색하고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이자 멘토 역할을 한다. 야호전환학교는 가정이다.

나중에 청소년과 혹은 시민들과 함께 다시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야호학교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소득에 따른 학교 밖 시간의 교육 불균형 해소 등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전주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야호전환학교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배움과 열정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야호전환학교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1년의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찾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젤렌스키 대통령 "핀란드 군사 지원, 큰 도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신나 미린 핀란드 총리와 만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핀란드의 군사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총기보다 아이 사랑하는 나라에 살고 싶어"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시위대가 상원 민주당원과 합류해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반사와 관련해 총기 규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총기 옹호론자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이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